출처 : Nucleonics Week & Nuclear Energy Institute 등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업협력부 (☎ 054-704-7824)

[주요기사]

1. 바이든 당선으로 美 정부 원자력 지원 의견 분분
○ 원자력계 긴장, 기존 기술개발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

2. 英 에너지백서, 원자력 재원조달 세부내용 포함 예정
○ 에너지백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원전 재정지원 기대

3. Dominion Energy社, Surry 원전 지연관련 정보 제공
○ 냉각수 취수 관련 인증서 발급문제로 2차 운영 면허 갱신 지연

바이든 당선으로
美 정부 원자력 지원 관련 의견 분분

- 바이든 당선으로 원자력계 긴장, 기존 기술개발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출처 : Nucleonics Week Vol. 61 / No. 42 / November 12, 2020

○ 美 대통령 당선인 Joe Biden 행정부의 원자력에너지 지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과, 향후 4년은 기존·신규 원자로 기술개발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로 의견이 나뉘고 있음

○ 당선인 지지자들은 원자력에너지가 Biden 행정부 기후정책의 일부이며 Biden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함. 전반적인 민주당 정책이 다음 의회까지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원자력 에너지 사용 장려 법안은 양당이 서로 협력할 부분으로 본다고 밝힘

○ Biden은 7월 14일 청정 에너지계획 발표를 통해 2035년까지 원자력과 클린에너지 사용을 지속하여 순수 전력생산 달성을 위한 첨단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구할 것이라 강조함

○ Biden의 기후정책은 원자력 및 다수 청정에너지원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Trump가 철회한 UN 파리협정(탄소배출제한)에 다시 참여할 것임을 발언함

○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Biden의 지지는 결국 원자력에 도움이 될 것이며, 소형 모듈 원자로 및 신형원자로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함

○ 단, Biden 행정부는 미국 우라늄 산업 활성화 정책은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英 에너지백서, 원자력 재원조달 세부내용 포함 예정

- 연말 발간 에너지백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원전 재정지원 기대 -

출처 : Nucleonics Week Vol. 61 / No. 46 / November 12, 2020

○ 발간이 연기된 영국 에너지백서는 3.2GW 규모의 Hinkley Point C 발전소 준공 후, 추가 원전건설 여부를 결정할 주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됨. 업계에 따르면, 이 문서는 올해 말 발표될 것이며 원전건설을 위한 새로운 사업지원 정보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함

○ 영국 내 상용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EDF Energy社와 Hitachi社는 규제자산기반(RAB)모형을 통해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길 원한다고 발언함. 2019년 자금지원 모델 문제를 이유로 Wylfa Newydd 프로젝트 개발을 중단시켰던 Hitachi社는 올 9월 16일, Wylfa 발전소와 영국 서부 Oldbury 발전소 계획을 공식 취소함

○ 영국 원전산업계 전문가들은 RAB 사업모델을 개정해 대형 원전 지원, 소형모듈원전, 차세대원전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여 영국의 탄소배출 제로 공약 이행을 위한 미래 에너지믹스의 일부로 원자력에 대한 정부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힘

○ 11월 9일 BBC는, 비즈니스 &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 장관 Alok Sharma氏가 영국 수상 Boris Johnson氏와 함께 에너지정책에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 보도함. BBC에 따르면, 정부의 원전 건설계획이 2050년 탄소배출 0 달성을 위한 10개 전략에 포함될 전망이라 언급함 ◈

Dominion Energy社, Surry 원전 면허갱신 지연관련 정보 제공

- 냉각수 취수 관련 인증서 발급문제로 2차 운영 면허 갱신 지연 -

출처 : Nucleonics Week Vol. 61 / No. 46 / November 12, 2020

○ 버지니아州와 Dominion Energy社는 주(州) 환경 규제 당국이 Surry 발전소의 수산자원 요건 준수를 인증하지 못한 사유를 공개하였음. 이에 따라 美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역시 발전소 후속 면허 갱신에 대한 최종 승인을 허가하지 못함

○ 버지니아州 환경품질부(DEQ)에 따르면 Dominion社의 Surry 발전소(1,760MW)[1]는 주(州) 해안지역 관리법에 따라 요구되는 해안관리 조건들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으나, 취수 기술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 DEQ는 '19년 11월 조건부 인증으로 버지니아州 연안수역관리법을 충족하기 위해 냉각수 취수로 인한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州정부는 정책집행과 최대 실행 범위의 일관성을 검증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며, 이 인증서가 없는 경우 연방 기관이 면허 및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NRC는 규제기관의 조치요청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Dominion社는 NRC에 90일간의 기간연장을 요청하며 DEQ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중이라 함. NRC는 Surry 원전 면허 갱신 신청서에 대한 최종 안전평가보고서와 최종 환경영향 보고서를 각각 3,4월 발행함

○ NRC가 운영면허 갱신을 승인하게 되면 Surry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52년과 2053년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됨 ◈

1) NRC가 신청을 승인할 경우, Surry 원전은 Turkey Point와 Peach Bottom 원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 20년 면허 갱신을 받는 세 번째 발전소가 됨